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김희애

넷플릭스 시리즈 '퀸메이커'

김희애·문소리 주연 호흡
대기업 이미지 메이킹 귀재
인권변호사 서울시장 만들기
“여성 서사 중심 이끌어 행복”

인권변호사 오경숙(문소리 분)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희애는 “황도희는 은성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하다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충격받아 회사를 관두게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도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는 성격”이라며 “오만방자한 은성그룹을 부수고, 오경숙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걸 새 목표로 삼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애는 또 “여성 서사를 담고 있지만,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의 본성과 욕망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다”면서 “캐릭터들의 치밀한 심리전과 거듭되는 반전이 대본을 놓지 못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김희애와 호흡을 맞춘 배우 문소리는 “한국에 수많은 드라마가 있었지만,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에 본 적 없는 캐릭터를 맡았다”고 말은 배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문소리가 연기한 오경숙은 은성그룹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자 은성백화점 옥상에서 두 달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다 화제를 모은 변호사다.

대중을 끌어당기는 화법과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본능을 타고난 인물로,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립하던 황도희와 손잡고 도전을 시작한다.

문소리는 “여성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흔치 않



문소리

은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면서 “기존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연출을 맡은 오진석 감독은 “강한 두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를 이루는 권력의 세계에 정면으로 맞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점이 여타 정치물과 다르다”고 차별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물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여성이 충돌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빛고을예술단 '사랑의 콘서트' 을 첫 공연



빛고을예술단의 '사랑의 콘서트' 장면.

<빛고을예술단 제공>

15일 양림동 펍킨마을 야외광장

문화소의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포럼을 펼쳐온 (사)빛고을예술단이 올해 첫 번째 공연을 펼친다.

오는 15일 오후 5시 광주 남구 양림동 펍킨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

740번째를 맞는 이번 '사랑의 콘서트'에서는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사회로 진행되며 재즈 가수 장

소영의 재즈를 비롯해 지스타의 퓨전댄서, 김동규 가수의 7080통기타, 박용주 음악감독의 색소폰, 김상기 감독의 희극 풍자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지난 2000년 설립된 빛고을예술단은 2005년부터 '사랑의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을 비롯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공연 등을 진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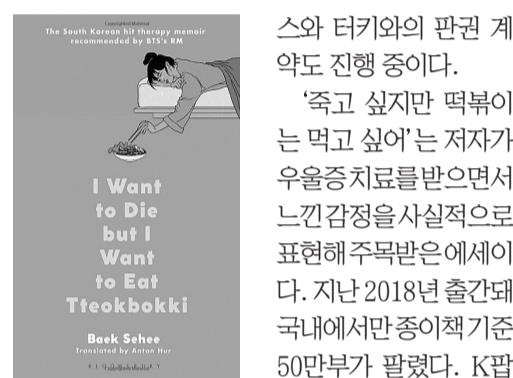
백세희 에세이, 영국서 반년만에 10만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의 베스트셀러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영국에 소개된 지 반년 만에 10만부가 팔렸다고 BC에이전시가 11일 밝혔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수출 계약을 이끈 BC에이전시에 따르면 이 책은 지난해 6월 중순 원제목을 그대로 영역한 'I Want to Die but I Want to Eat Tteokbokki'로 영국에서 출간됐다. 판권은 헤리퍼트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 출판사 블룸즈버리가 썼다.

이 책은 영국을 포함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등 17개국에 판매됐다. 또한 프랑



스와 터키와의 판권 계약도 진행 중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저자가 우울증치료를받으면서 느낀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목받은 에세이다. 지난 2018년 출간돼 국내에서만 총 50만부가 팔렸다. K팝을 비롯한 한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우울증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인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AI 개발 말뚝치, 10억 어절까지 구축

문화진흥 기본계획...6070 이야기예술인 발굴·수어 통역 확대 등

정부가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의 한국어 처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말뚝치를 2027년 10억 어절까지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5년간의 문화정책 기본 방향을 담은 이번 계획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오늘전통'으로 이

끌고, 전통문화가 상품 상품화 기술 등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도록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국학자료 스토리텔링 원천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민간기록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등에 대응한 한국어 AI 언어모델 개발을 위해 '국어 말뚝치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고품질 말뚝치를 2027년 10억 어절까지 구축한다.

노인, 장애인의 문화활동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6070 이야기예술인' 구원 활동을 통한 스타 발굴, 융복합 공연화, 전통 이야기

해의 보급 등을 추진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발표 때 수어 통역과 점자 번역 지원을 2027년 연간 2000회로 확대한다. 영화와 전시 등의 수어 통역 영상 제작 지원도 늘린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전통문화 창업은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예비창업 200팀, 창업 3년 이내 기업 100곳, 창업 3~7년 도약기 기업 30곳을 지원한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문화적 해결 방안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해 주민을 연결하는 '연결사회 지역거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 구축한다.

국민의 심리 안정을 위한 사회적 연결성 정도를 측정해보는 '사회적 연결성 척도'를 개발하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문화자유교실'을 내년에 시범 운영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독서클럽 모집

전남대 도서관 다음달 28일까지

전남대 도서관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문화공동체를 위해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역 사회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대 도서관이 '2023 독서클럽'을 모집한다. 재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재학생 클럽 20팀, 지역민 클럽 100팀을 모집한다. 팀 당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시도민과 대학생 등 누구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무

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독서클럽 회원에게는 독서토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의 한 책'이 무료로 배부되며 도서관 이용과 '한 책 문화기행'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예정이다.

2023년 '올해의 한 책' 선정투표는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 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장우연 전남대 도서관장은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들이 책을 매개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독서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